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God with Us to Dwell

Words by
Rose Aspinall

SATB and Solo

Music by
Mary McDonald

해설자 1: 어서 그리스도의 구유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임하신 신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마침내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설자 2: 기다리고 고대하던 세상이 마침내 그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해설자 1: 침묵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어두운 방과 환한 산 정상에서 드러진 아주 오래된 옛 기도가 오늘밤 유약한 한 아기로 응답된 것입니다.

해설자 2: 천사가 탄생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없던 별이 하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영광이 대기에 가득합니다. 목자들과 왕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구유 앞에 나오게 되었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모임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자 1: 이제, 그 별빛 아래서, 마리아는 갓난아기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수태하도록 선택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해설자 2: 그렇다면 이 작은 아기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메시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입니다. 갑자기 마리아는 그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시작) 모든 의문과 의심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오늘밤 하나의 답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분이 여기에 누워계십니다.

Tenderly ♩ = ca. 82

p

Solo *p*

꿈 결 같은

9

이 모든 일 주천 사 가

13

나 타 나 서 전 하 여 준

17

모 든 말 씀 들 이 - 천 한 종

20

에 이 루 어 졌 네 - 임